

“국내투자 세제혜택 늘었지만 장기적 자산 형성 더 어려워져”

논란의 ISA 개편

생산적금융 ISA, 국내주식 비과세 개편 시 계약기간 최대 5년 제한
납입한도 이월 제도 폐지에 ‘불만’
제검토 요구에 세부방안 조정 가능성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국내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새 상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혜택까지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기존 ISA 제도 개편 방안이 함께 담겼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해 얻은 이차·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한도는 2억원이며 최대 10년간 운용할 수 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ISA와 생산적금융 ISA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어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가입자에게는 새로운 절세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 국내 투자 혜택 확대했지만 기존 ISA 축소에 반발

정부는 가계 자금을 국내 기업과 자본 시장으로 유도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증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주식과 성장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장기 투자자금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생산적금융 ISA 자체보다 기존 ISA를 함께 손질한 데 집중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엇갈린 반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현재 기존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 간 유지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올해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남은 한도 1000만원을 이월해 이듬해 최대 3000만원까지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7년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기존 ISA의 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폐지된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하나의 계좌에서 장기간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리던 전략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소득이 적을 때 남겨둔 납입한도를 향후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활용하는 방식도 어려워진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투자용 ISA를 추가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 ISA의 장기 운용 혜택은 유지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만기를 미리 늘릴 수 있는지 묻는 투자자(ISA 가입자)들이 있지만 아직 법 개정 전이어서 확정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외 ETF 투자자도 썬법 복잡

기존 ISA에서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지만 생산적금융 ISA에

는 담을 수 없다. 기존 ISA에서도 해외지수 ETF 투자는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간 절세 효과를 누리는 어려워진다. 일부 투자자가 미국 주식 직접투자를 검토하는 이유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사회초년생과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20~30대는 전체 ISA 가입자의 41%를 차지했지만 가입금액 비중은 27%에 그쳤다. 당장 채우지 못한 한도를 소득이 늘어난 뒤 활용할 수 있었던 이월 혜택의 필요성이 큰 계층이다.

정치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기간과 이월 납입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ISA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국내 투자 혜택 확대와 별개로 기존 ISA의 장점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통상 7~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기존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 등 세부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방산 빅4, 하반기부터 실적 성장세 ‘주목’

방산주, 올해 코스피 상승률 절반
이달부터 신규 계약 가시성 핵심 변수

중동 전쟁에도 웃지 못했던 국내 방산주가 다시 날아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반기부터 주가 가시성이 확보될 경우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대형 방산주 4곳은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평균 26.39%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48.52%)의 절반수준인 셈이다.

방산주가 힘 못 쓰는 배경으로는 기대보다 더딘 실적 개선 속도가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면 2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매출 9조2929억원, 영업

이익 1조365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2%, 58.5%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동일 기간 외국인 매수세도 같은 흐름을 탔다. 강태호 대신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페인 K9 자주포를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수주가 하반기 내 결정될 수 있어 수주잔고 성장 여력이 크다”고 했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기대에 못 미쳤다. 2분기 매출 1조1101억원, 영업이익 10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4%, 29.5% 증가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은 부진했다. 한국항공우주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1% 늘어난 1조 167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484억원으로 43.1% 감소했다. 현대로템도 2분기 매출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은 1조6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324억원으로 9.7% 감소했다.

다만 8월부터는 분위기가 반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산 특성상 대형 수주가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견인하는 만큼 신규 계약 가시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반기부터 국내 양산과 폴란드 등 해외 수출 물량이 확대되며 실적 성장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

대어 가뭄에 IPO 지각변동 NH·삼성, 대형딜로 ‘선두’

NH투자증권 6795억, 삼성 6287억
상반기 최대어 케이뱅크 공동 주관
KB·미래에셋·한투 순으로 뒤이어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국내 기업 공개(IPO)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에는 무신사와 구다이글로벌, 소노인터내셔널 등 조 단위 기업들의 상장이 예정돼 있어 대형 IPO 주관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올해 IPO 공모총액 기준 대표 주관 실적은 NH투자증권이 6794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증권이 628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KB증권(3100억8800만원), 미래에셋증권(2058억 3700만원), 한국투자증권(143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2024년과 2025년 연속 IPO 리그테이블 정상에 올랐던 KB증권은 올해 상반기 대형 딜 부재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상반기 최대어였던 케이뱅크 IPO를 공동 대표주관하며 선두권으로 올라섰다.

시장 규모 자체도 크게 축소됐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 기업(스팩·리츠 등 제외)은 17개(유가증권 시장 1개·코스닥시장 1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모금액 역시 약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약 2조2000억원 대비 반토막 수준을 보였다. 신영증권은 올해 연간 IPO 시장 규모도 기존 전망보다 축소해 64~68개 기업, 공모금액 3조4000억~3조9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에

는 LG CNS와 서울보증보험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대어급 기업 4곳이 상장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케이뱅크 한 곳에 그쳤다”며 “중복 상장 이슈로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절차를 중단한 것도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IPO 시장 둔화는 증권사들의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KB증권의 올해 상반기 기업금융(IB) 수수료 수익은 13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53억원)보다 48.4% 감소했다. NH투자증권 역시 2378억원에서 2055억원으로 38.5% 줄었다.

이 같은 구도가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안갯속이다. 지난 7일 기준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총 45곳이다. 미래에셋증권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딜을 확보했고 한국투자증권이 11건, 삼성증권이 9건, NH투자증권이 8건을 기록했다. 반면 KB증권은 2건에 그쳤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업가치 약 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소노인터내셔널과 10조원 규모의 구다이글로벌을 대표 주관하며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업가치 10조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무신사와 메가존클라우드, 리벨리온에도 참여하고 있다. 삼성증권 역시 메가존클라우드와 리벨리온을 앞세워 선두 군히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B증권도 리벨리온, 라이너, 업스테이지, 무신사, SB선보 등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현재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씨아이에 스케미칼과 엠에스비이오 등 2곳에 머물러 있어 실제 딜 성사 여부가 연말 순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신하은 기자 godhe@

“RIA 세제혜택 받으려면 결제일 확인해야”

금감원 Q&A

해외주식, 주문체결일부터
결제 완료까지 시차 있어

최근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종합투자계좌(IMA) 등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제때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결제일 차이로 세제혜택이 줄거나, IMA에 가입한 다음 날 취소하려 해도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된 금융투자상품 관련 민원사례를 토대로 RIA와 IMA, ETF 특정증권신탁이용 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는 주문을 체결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 결제가 완료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결제 완료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투자자 A씨는 RIA에서 해외주식을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증권사 안내를 보고 5월 29일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제가 6월 2일 완료되면

서 기대했던 100%가 아닌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습니다.

RIA는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계좌에 입고해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올해 7월 말까지 80%, 12월 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공제율이 변경되는 시점에 해외주식을 매도한다면 결제에 걸리는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주문체결일과 결제 완료일 사이에 시차가 있는 만큼 거래 증권사를 통해 실제 결제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매도 이후에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ETF 등에 투자해 1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RIA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예탁금으로 제한됩니다.

IMA에 가입할 때는 중도해지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IMA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고객이 맡긴 자금을 주식과 채권, 기업대출 등에 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허정윤 기자